문화광장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정치 스릴러 영화들

김 정 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8월 6일 아침 언론인 오홍근은 출근길에 괴한 3인으로부터 칼부림을 당한다. 경찰은 그들이 사용한 차량이 군부대 소속임을 확인하나, 정보사는 용의차량의 사건 관련을 부인한다.

여론에 밀린 국방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8월 25일 용의자 4명이 검거된다. 올림픽이 진행 중인 9월 24일 국방부는 기자에 대한 테러 사건 묵인 및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보사 사령관과 참모장을 예편시키고, 기자의 칼럼에서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보고 범행을 지시한 준장 1명, 지휘한 소령 1명, 행동책 대위 1명을 입건하고, 직접 범행을 한 부사관 3명은 징계위에 회부시킨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87년 6·10 항쟁과 6·29 선언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발전된 한국을 소개하려던 시기에, 한국정신문화원의 양동안은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발표한다. 정치 스릴러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일어났었다.

최근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화제가 되었다.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은 정치 스릴러 영화 'Z'(1969), '고백'(1970), '계엄령'(1972), '실종'(1982)을 만들었다. 그리스 출신이지만 주로 프랑스에서 영화를 제작하였다. 그리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2차대전 이후 독일의 지배를 벗어나서는 좌우의 극한 대립을 겪고, 67년 군사쿠데타와 75년 왕정 폐지 등의 역사를 거쳐왔다. 6·25 참전국이기도 하다.

실제 있었던 정치인 암살 사건을 다룬 'Z'는 줌렌즈를 이용한 핸드헬드 촬영과 과감하고 빠른 편집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사건을 해결하려는 한 기자와 검사의 노력으로 경찰청장 등 배후가 밝혀지나 이들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오히려 기자는 공문서 누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스에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다. 군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금지한다. 장발, 미니스커트, 소포클레스, 톨스토이, 에우리피데스, 마크 트웨인, 아라곤, 트로츠키, 아리스토파네스, 이오네스코, 사르트르, 비틀스, 해럴드 핀터, 베케트, 도스토옙스키, 팝 음악, 현대음악, 당연히 언론자유와 파업도 금지한다고 발표한다. 고대 그리스 문자 'Z'도 "그는 살아 있다"라는 뜻을 지녀서 금지한다. '고백'에서는, 스페인 내전,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 등을 하고, 2차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 미국과 내통한 간첩, 트로츠키주의자, 시온주의자 등의 혐의로, 각본대로 이뤄지는 심문과 재판을 통해서 11명이 사형을 당한다. 프라하의 봄으로 알려진 체코의 민주화 운동은 1968년 8월, 소련 군대의 침공으로 중단된다.

사설

피싱범죄 피해 속출, 근본적 예방법 없나

최근 스미싱 문자가 들끓고 있다. 스미싱(SMShing)이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Phishing) 공격을 일컫는 용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싱한다는 의미다. 이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을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엊그제 모정부기관의 직원 연락처가 해킹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부고 스미싱 문자가 나돌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6일 제주지역에 위치한 모기관의 임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날 별세했다는 문자가 일제히 발송됐다. 해당 기관 확인 결과 임원의 연락처를 해킹한 스미싱 문자로 해당 임원은 신변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청첩장이나 부고로 알리기 때문에 깜쪽같이 속아 넘아갈 수 있다. 문제는 스미싱 문자를 보낸 후 곧바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전송 기록을 지워버려 정작 피해자들은 자신이 스미싱에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스미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친구가 죽었다고, 누구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부고 문자메시지를 서슴없이 보낸다. 스미싱 문자 종류도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접수와 청첩장 등 다양하다. 비단 스미싱 문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심각하다. 2022년 한햇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무려 116억원(409건)에 달한다. 피싱 범죄가 활개치면서 제주도민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피싱 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링크 클릭 말라'는 예방법이 고작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e-모빌리티 엑스포 10년, 제주 미래 100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글로벌 친환경 e-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 대전환 플랫폼'을 목표로 내건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가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명칭변경은 그동안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역할을 확대해 전기선박과 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지를 담았다.

2014년 '전기차의 다보스포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를 주제로 시작한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명실상부 전기차의 대중화 견인과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혁신까지 선도하고 있다.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그것도 산업전시의 불모지인 제주에서 이룬 장족의 발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엑스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산자부, 과기부 등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후원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의 전기차를 주제로 한 엑스포가 실물경제 접목은 물론 기업체의 사업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출범 때부터 있었다면 e-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제주의 미래 100년을 위해 전기선박과 UAM 등으로 지평을 확장하는 이 엑스포가 명실공히 'e-모빌리티의 다보스포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동홍동 愛 따뜻한 병원 동행의 손길

강 익 자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이웃을 살피는 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찾아가고 있다. 이웃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며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관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필자도 요양보호사 일을 했는데, 당시 만났던 어르신들 역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위원들도 비슷한 사례들을 들어 한 목소리를 내었다. 병원 동행의 필요성과 가치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회의했다. 병원동행은 타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제주도에서는 우리동네가 처음으로 시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동홍동 愛 따뜻한 병원 동행' 사업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작해 보고자 한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병원동행에서 귀가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보호자가 없어 병원 동행이 필요한 가구가 우선시 되며, 동행 접수를 통해 협의체 위원 2인이 매칭되어 서귀포시내 병원 및 약국을 동행하고 안심귀가하는 보호자 역할을 지원한다. '한 분이라도 동행의 손길을 내민다면 보호자가 되어 드리고, 우리의 작은 관심이 이웃에게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하지 않을까?'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정 비전·정책 담는 공직자 의지 강조

오 지사 "의미 담는 노력 필요"

○…오영훈 제주지사가 "업무를 할 때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고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 낼지 함께 고민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

오 지사는 29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 회의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강조.

오 지사는 "APEC 유치신청서는 제주도정의 가치와 도전과제, 목표가 총망라돼 제주의 비전을 전 세계에 제시한다"면서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와 가치, APEC이 추구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부합하도록 정책을 집약해 정리한 노력이 담겼다"고 전언. 백금탁기자

위성곤 의원 초청 농정간담

○…농협 서귀포시지부·서귀포시농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26일 서귀포시축협 흑한우명품관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을 초청한 가운데 농정간담회를 개최.

윤재춘 제주농협 본부장, 서귀포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협력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활성화 등의 당면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 필요성이 제기.

위성곤 국회의원은 "농협의 당면현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 현영종기자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황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황칠나무의 효능
★ 혈액순환 촉진 ★ 간기능 개선
★ 생육 촉진 ★ 항암·항산화 효과
황칠발효액의 효능
★ 소화 흡수율 상승 ★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 요리시 원액 : 물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약6시간 이상 침적할경우 육질이 부드럽고 고기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킴
★ 음용시 원액 : 물 혹은 커피, 요구르트 등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드시면 좋음
황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졸 70대 수의사(김상흡)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2696-9876

묘지매매
연동 2488-439
묘지매매(문중토지)
618㎡ 조성완료
3.3㎡ 당 55만원
☎ 010-3699-0254